

### 고 1~2학년 개인맞춤형 진로진학상담부스 운영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희망학과 및 대학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시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고 2 진로진학상담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 내용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에도 도내 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및 대입진학에 대한 개인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부스를 지난 2일 운영했다.

대입 진로진학상담부스는 도내 고 1~2학년 학생들의 대입 목표 설정을 돕고 단계적 준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상담으로, 도교육청 및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지역에서 실시했다.

학생들은 상담카드, 학생부출력본(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성적 통지표를 지참하게 해 밀도 있는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10월에 2차 진로진학 상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교협 상담센터 전화상담(1600-1615) 및 대입정보포털 온라인상담(http://www.adigakr)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 원광대, 청년 위한 기업 연합설명회 열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학일자리센터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18년도 중·중소기업 연합설명회를 지난달 31일 교내 학생지원관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400여 명의 재학생과 지역 청년구직자들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 내 중·중소기업이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기업을 알리고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하림, (주)오다텍, 호텔 르윈, 대자인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명회에 참여한 9곳의 기업들은 기업소개, 채용계획을 비롯해 각 기업의 특성에 따른 선호인재상 등을 설명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한 층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원광대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스토리펀딩 후원 릴레이 활발

전주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생계비 등 지원

전주다움 소식지에 사연 소개 후 모금된 후원금으로

전사도시 전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음식을 씹지 못했던 홀로거주 어르신 이틀 지원에 받게 됐다. 또한, 백혈병 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가며 어렵게 생활해온 모자간에는 6개월간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전주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선)와 전주사회복지사협회(회장 서양열), 꽃밭정이노인복지관(관장 김옥)과 지난 3월부터 함께 추진해온 전주다움 스토리펀딩 후원 릴레이 사업이 전주 시민과 기관의 참여 속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주다움 스토리펀딩 후원 릴레이는 전주 시민 중 위기가정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시정 소식지인 '전주다움'에 사연을 소개하고, 모금

된 후원금을 치료비와 생계비 집수리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별 역할로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위기가정 발굴에 힘쓰고, 전주 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원 대상 심의·선정을 맡으며, 전주시는 발굴된 지원대상자의 사연을 시정소식지를 통해 소개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민과 기관, 단체 등의 후원금 모집을 맡고 있다.

전주다움 스토리펀딩 후원 릴레이에서는 현재까지 37명이 소개됐으며, 전주 시민의 동참으로 모아진 후원금과 이랜드복지재단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후원해 총 850만원이 모여 대상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판매로 거동 불편하고 차가 27백여에 없어 음식을 씹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 홀로거주 어르신은 틀니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백혈병이 재발해 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가면서 어렵게 생활해온 모자가장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원되고, 화장실 붕괴위기에 직면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홀로거주 어르신에게는 화장실을 개보수해주고 있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주다움 후원 릴레이는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최소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의 버팀목이 되고 있기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다움 후원 릴레이 사업 대상자 발굴·신청과 후원 문의는 꽃밭정 이노인복지관 행복더하기 담당자(063-237-0770)에게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교생이 61명에 불과한 산골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산골 혁신학교 꿈과 끼를 찾아보는 여름 계절학교를 통한 참학력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숲 속에서 공부하니 재미있어요”

완주 소양서초, 참된 학력 성장프로그램 운영

전교생이 61명에 불과한 산골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산골 혁신학교 꿈과 끼를 찾아보는 여름 계절학교를 통한 참학력 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 소양초등학교(교장 강권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학생과 교사,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과 끼를 찾아보는 여름 계절학교’를 열었다.

주요 활동으로 찾아오는 도서관 교육, 식생활교육, 국산 목재 재감교육, 연주회감상, 관계개선을 위한 집단상담활동, 텐트체험, 전래놀이, 비탈놀이, 타악문 화예술클럽 등을 통해서 교육공동체가 즐겁게 나누며,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기동취재반

특히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로 바느질 인형만들기 시간과 한문 화예술클럽기부협회와 전래동화 놀이연구회의 지원으로 연주회 감상과 전래놀이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며 꿈과 끼를 찾아보는 여름계절학교를 통하여 진로교육과 참학력 성장 프로그램을 열어 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6학년 김하은 학생(다모양자기)은 “상담 활동을 통하여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목공예를 하면서 평소 감수했던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좋았고 숲 속에서 텐트를 치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농업의 소중함 배운다... 전주지역 초교 ‘스쿨팜’ 조성

학생들이 직접 모내기

작물수확하는 체험

농업가치 인식 기대

전주지역 20개 초등학교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농업 체험교육장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문화초등학교 등 20개 초등학교에 텃밭과 벼 체험장 등의 스쿨팜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꾼 작물을 수확하는 텃밭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스쿨팜 조성은 시가 자라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도교육청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총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20개 초등학교에 노지텃밭 1.185㎡과 텃밭상자 527개, 벼 체험상자 154개를 조성했다.

텃밭 활동은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은 지도교사와 함께 상추와 가지, 토마토, 옥수수 등을 직접 심고 벼 체험 상자에 모내기 체험도 하게 된다. 또, 스스로 가꾼 상추와 썬갠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또한, 해당학교에는 효율적인 사업



전주지역 20개 초등학교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농업 체험교육장으로 탈바꿈했다.

추진을 위해 매주 2회씩 학교별로 2명의 텃밭관리사가 방문, 작물재배와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6월 중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식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원 문화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이 키운 작물에 특히 정성과 애정을 갖고 볼란다”라며 “텃밭체험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수확의 기쁨을 통해 자아 성취감을 느

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며 “학교텃밭이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능력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토론과 실습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 ‘시상’ 열어

전주대 외식산업학과(학과장 정혜정)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스타센터 3층 갤러리에서 제16회 졸업작품전 ‘시상’을 열었다.

이번 졸업작품전의 제목 ‘시상’은 기쁨 희(喜), 슬픔 비(悲), 사랑 애(愛), 즐거움 율(樂), 선망할 욕(欲)이라는 다섯 개의 소주제를 반영한 한편의 시처럼 매 순간이 시상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커딩식으로 시작해서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졸업작품을 소개했다. 고(古) 조리서에 나오는 연서유필을 재해석하여 페지갑비를 만들고 흑염자로 바위느낌에서 제주도의 현무암 표현하는 등 새로운 조리법의 창의적인 음식을 선보였다. 특히 대상으로 선정된 하세훈 학생(24)의 작품이 돋보였다. 하 학생

은 이태백 시인의 인생을 모티브로 ‘월하 객잔’이라는 음식을 내놓았는데, 칠선주 막걸리와 양갱과 송이회로 신과 후수를 표현했다.

이날 전시된 100여 개 음식 중에 24개는 농축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로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호인 총장은 “시상이라는 주제답게 작품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시상이 떠오를 만큼 멋진 작품이고 졸업생들이 멋진 한식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귀한 한분 한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는 다양한 국내·외 인턴십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식조리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